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지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 죽음에 대한 준비를 중심으로

차유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요 약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회 역시 구성원의 연령구조가 지속적으로 노령화되고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 시대에 적합한 목회와 교육을 준비해야하고, 특히 노인들로 하여금 노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죽음의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가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서 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노년목회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 이후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교회의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8년부터 관련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학과 사회복지학,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 중에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교계 및 학계의 관심이 증가해야 하고, 다학제적인 개입방안을 활발하게 탐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들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들의 정확성, 효과성, 효율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노인, 교회, 죽음에 대한 준비, 문헌연구방법

Ⅰ.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사회는 개인이 고령화하고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인구가 고령화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개인고령화와 개인 고령화를 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인구고령화를 모두 포함한다(최성재 편저, 2012).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5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13.1%를 차지하였으며, 203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5).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화사회와 관련된 대비책

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교회 역시 교회 구성원의 연령구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노령화되고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육 및 노년목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의성(2014)은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화사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노년목회와 노인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생애 특성에 적합한 교회의 신앙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성공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방향을 설정하여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은 이 외의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김도인, 2015; 김미경, 2008; 송길원·김향숙, 2008; 이정관, 2014).

연구자들은 특히 영적 기관인 교회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인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베일런트(2002, 이덕남 역, 2010)는 그의 저서 「행복의 조건」에서 성공적인 노화는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삶의 쇠퇴 과정까지 훌륭하게 관리해 냄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노년기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통찰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노인들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자 적응과제인 죽음의 문제를 준비시키는 것은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는 교회의 노인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영역이라 하겠다(김재욱, 2014; 박종현, 2014; 이은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들 중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교회가 노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삶을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사역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준비를 목적으로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들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물이다. 검색기간을 2000년부터 발표된 문헌으로 제한한 것은 2000년 이후 각 학문영역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들(김재욱, 2014; 차유림, 2014)에 근거한 것이다.

논문 선정 포함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엔진을 이용하였으며, 누리미디어, RISS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발표되는 연구물이므로 분석 자료의 질이 엄격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원들을 연구한 관련 논문만을 선정하기 위해 "노인", "노년", "교회", "목회", "죽음", "기독교적"을 주제어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제외준거로는 첫째,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 저자, 연도에 발표된 논문은 연구 내용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학술지는 제외하고 학위논문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검색된 논문 중 죽음인식, 문학이나 철학, 신학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나 양상 등을 다루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진행되지 않은 논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21편의 선행연구가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택되었으며, 이 중 학위논문이 18편, 학술지 3편이었다[1].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에 의해 산출된 자료들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인 문헌연구방법(Fink, 1988)을 활용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후 연구 문제 및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동향연구를 수행하면서 의도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석대상 논문들을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서진환, 2008),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의 지원방안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시기별, 분야별, 목적별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연구에서 강화 혹은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틀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 발표된 시기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연구 실태를 파악하는 관련 연구의 역사 및 현황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가 발표된 학문의 분야를 확인하였다. 셋째, 분석대상연구들을 연구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목적별 분석은 최근 동향 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분석 주제 중의 하나로, 해당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며, 연구들을 주제별로 유목화하는데 도움이 된다(서진환 2008). 유사한 학문 영역에서 연구 동향을 조사한 선행연구(김신향·변성원, 2014)에서 활용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문헌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등 총 4가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

1) 같은 기간동안 '교회'와 '노인'을 주제어로 포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방안들에 대해 살펴본 연구의 수는 학위논문 734편, 학술지 108편으로 총 842편이 검색되었다. 이것은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역 및 교육, 서비스 등을 매우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개별 교회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노인대학, 노인교육 등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각종 프로그램, 교육, 목회상담 등의 활성화 방안, 이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준비하도록 돕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물은 매우 적은 수가 발표되고 있어 교회와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은 이은성의 연구(2014)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시기별

21편의 선행연구가 발표된 시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교회의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8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최근 들어 관련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문헌들의 발표시기별 분포

시기	2000-2003	2004-2007	2008-2011	2012-2015	계(%)
개수	4(19.0)	3(14.3)	6(28.6)	8(38.1)	21(100)

2. 연구분야별

선행연구가 발표된 학문분야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신학에서 발표된 연구가 9편으로 총 42.8%를 차지하여 전체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에서 발표된 연구가 4편으로 19%, 기독교교육과 목회상담에서 발표된 연구가 각 3편으로 14.3%, 종교교육과 상담에서 발표된 연구가 각 1편으로 4.8%를 차지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문헌들의 발표분야별 분포

분야	신학	기독교 교육	목회상담	종교교육	사회복지	상담	계(%)
개수	9(42.8)	3(14.3)	3(14.3)	1(4.8)	4(19.0)	1(4.8)	21(100)

3. 연구목적별

분석 대상 연구들이 목적을 어디에 두어 진행되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교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9편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목회적 돌봄방안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4편, 죽음준비교육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5편이었다. 목회적 돌봄방안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한 연구의 경우, 목회적 돌봄이 노년기 죽음불안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목회적 돌봄은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아통합과 인생에 대한 재평가를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회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죽음준비교육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한 선행연구의 경우,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 불안을 극복케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한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 현재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죽음준비교육이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죽음준비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는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죽음에 대한 불안 감소 방법과 활기찬 미래의 삶 준비, 유족에 대한 슬픔 치유 방법, 종교에서의 죽음과 사후의 생, 생의 회고, 장기 및 신장의 사회 환원 방법, 유언에 관한 법적 상식, 질병과 죽음 관계, 장례에 대한 정보, 호스피스 교육, 죽음의 의료 법률 상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교회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밝히면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 교수-학습전략 및 교육교재 개발, 노인사역의 전문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총 2편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그 중 한국 교회에서 출석 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1편 발표된 바 있다, 60세 이상의 기독교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한신영의 연구(2000)에 응답자의 92.3%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이들은 죽음 이후 받게되는 심판(36.1%), 임종을 앞두고 당하게 되는 육체적 고통(16.1%),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14.8%),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10.9%) 등의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상은 교회성도(37.4%), 친구(32.2%), 배우자(13.5%)의 순으로 나타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84.5%가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노년기 기독여성의 죽음인식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도 1편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실시한 김성은(20123)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실시되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노인 개인의 상실과 애도과정을 지원하는 심리적 차원, 체계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차원, 그리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차원이 모두 다루어져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 번째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3편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각 연구에서는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기독교재단 산하 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에는 자서전쓰기, 인생곡선그리기, 각종 강의, 유언장쓰기 등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 편의 사례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목회자와 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의 부재, 노인특성과 수준에 맞는 죽음준비교재 및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 죽음준비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목회자의 인식변화, 노인들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예산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총 7편으로 전체 연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노인들의 죽음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7편의 연구들 중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5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2편이었다. 이론적 근거로 언급된 내용들은 발달과업을 다룬 에릭슨의 생애주기이론[2],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3], 안드라고지 나눔의

프락시스[4], 알폰스 뒤켄의 죽음준비교육이론[5],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6] 등이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새로운 죽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지적, 정서적·감정적, 의지적, 영적차원이 포함되는 한국형 죽음준비교육 개발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인지적 차원, 정외적 차원, 행동적 차원이 고려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7편의 연구 중 시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 연구가 4편이었고,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연구가 3편이었다.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자들은 유사실험설계방법, 사전-사후검사, 프로그램 만족도, 구두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삶과 죽음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게 되었고, 참여자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집단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죽음불안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프로그램을 평가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노인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다양하여 프로그램 종결 이후 함께 평가작업을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한글 이해 수준에도 개별 차이가 많아 활자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역시 용이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평가과정을 생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에릭슨의 생애주기이론은 '자아통합 대 절망'이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라고 본다. 자아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삶의 정체성을 찾고 생활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 노년기를 동요 없이 평화롭게 보낼 수 있고 삶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김창수, 2013).

3)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에서는 신앙발달이 계층적, 연속적, 불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40세 이후 다다르게 되는 우주적 신앙 단계에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문화, 전통,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도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지고 인생 중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본다(김재욱, 2014).

4) 안드라고지는 성인학습을 돕는 기술과 과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인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눔의 프락시스는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기독교 신앙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에 비추어서 자신의 현재의 행동을 대화의 참여를 통해 비평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는 과정을 뜻한다. 노인을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모델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하고 변형한 안드라고지 나눔의 프락시스가 연구자에 의해 제안되었다(최고은, 2012).

5) 뒤켄은 죽음준비교육을 4단계로 제시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지적인 단계(죽는 과정, 말기 간호, 고통 조절, 임종환자의 요구나 그들과의 소통,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의 철학,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에 따른 죽음관이 다른 것),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단계, 가치적 단계(인간이 죽는 방법에 대해 가치관 정립을 새롭게 하는 것), 기술 훈련 단계(말기 환자들이 모두 특수하며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다는 것)가 그 4단계이다(박종현, 2014).

6) 빅터 프랭클은 삶의 무의미성과 실존적 공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주창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한상황의 어두운 현실상황에서도 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의미요법은 삶과 죽음의 의미, 노동의 의미, 사랑의 의미 등 의미를 포함하는 문제들을 다룬다(김미희, 2013).

<표 3> 분석 대상 문헌들의 목적별 분포

목적	문헌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계(%)
개수	9(42.8)	2(9.5)	3(14.3)	7(33.4)	21(100)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지원 중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21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기별, 분야별, 목적별로 이를 구분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연구 동향의 경우, 2000년부터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08년부터 연구 수행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자기통합이라는 마지막 발달과업을 긍정적으로 이루어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교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기타 지원에 관해 진행된 연구의 수와 비교하면 죽음 준비를 목적으로 실시된 지원에 대한 연구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이 발견되어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 트루니에(1971, 강주헌 역, 2015)는 그의 책 「노년의 의미」에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죽음을 의식하고, 나이가 들면 죽음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과 노년에 대해 거의 입에 담지 않는 이유는 죽음에 관련된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가장 울컥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할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있어서다.”

한국교회와 학계에서도 죽음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해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죽음준비교육에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 불안을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한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 현재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죽음준비교육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강영선, 2008; 김신웅, 2008; 노상용, 2002; 정민재, 2011). 따라서 교계와 학계는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해 회피해야할 것, 덮어두어야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노인들이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과 죽음을 탐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야별 연구 동향의 경우 신학 이외에도 사회복지, 기독교교육, 목회상담, 상담 등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죽음준비교육과 관련하여 다학문간의 협력 및 연계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호(2011)는 죽음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죽음불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법학자 등의 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을 투입하여 질 높은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있는데, 보다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죽음

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학제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 구축되고 구체적인 기술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목적별 연구 동향의 경우, 문헌연구가 총 9편 발표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죽음 및 죽음불안과 관련된 목회적 돌봄방안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론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관련 모델 및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인의 죽음준비를 돕기 위한 교회의 지원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후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역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연구는 2편 발표되었는데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활발한 조사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교회의 지원방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예로, 60세 이상의 남·여 노인 1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경희의 연구(2008)에 의하면 응답자의 60.9%가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죽음준비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응답자의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인세대가 교회에서 제공되는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얻기 원하는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죽음준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죽음준비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양적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방법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죽음준비 관련 지원방안과 같이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다수 진행되지 않아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이나 기법이 소개되지 못한 경우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죽음준비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연구 결과물이 축적되면 죽음준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연구는 총 3편이 진행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지원방안을 계획할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연구는 총 7편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입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총 5편 시행된 것은 프로그램의 과학적·체계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실험연구가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평가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4편, 평가가 되지 않은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유사실험설계방법, 사전-사후검사, 프로그램 만족도, 구두평가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이 축적된 이후 장기적으로는 체계적 검토방법(systematic review)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교육과 관련된 개입방법을 구축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체계적 검토방법이란 실험 연구의 결과들 중 가능한 가장 최선

의 증거를 찾아 이것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다(백옥미, 2013). 이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입 효과성 평가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적으로 이해하고,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이유 및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특성, 효과성을 파악하게 되어 연구자들은 물론 실천가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덧붙일 제언은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평가기준은 크게 정확성, 효과성, 효율성 세 가지로 구분된다(정무성, 1996). 정확성 평가는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효율성 평가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평가로 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평가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효과성 평가만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들도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평가가 실시되지 못한 연구들에서는 연구 대상자인 노인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상이하고, 한글을 이해하는 것에도 개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평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이나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노인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교계 및 학계의 관심이 증가해야하고, 다학제적인 개입방안을 활발하게 탐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의 토대위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들에서 프로그램의 정확성, 효과성, 효율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한 작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곧 우주라고 말했다(송정림, 2014). 우주와도 같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노년기에 들어선 개인들이 교회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죽음과 관련된 불안을 해소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하여 성숙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계와 학계가 맡은 바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영선(2008). “노년의 죽음불안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숙·문재우·박재산(2008).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 - 경로당 및 교회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3. 105-132.

김도인(2015).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목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김명희(2002). “한국교회의 죽음 준비교육 실태와 목회적 돌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미경(2008). “노년기와 영성: 노인복지 인식전환을 위한 단상.” 『한국노년학연구』. 17. 97-111.

김미희(2013).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활용한 기독교 Well-dying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김선숙(2007). “한국교회노인을 위한 죽음준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김성은(2013). “노년기 기독여성의 죽음인식 경험과 목회신학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4(2). 9-34.

김신웅(2008). “노인 죽음 불안에 대한 기독교적 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신향·변성원(2014). “죽음준비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69-475.

김재욱(2014). “교회의 성인 후기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김지수(2009). “죽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적 돌봄방안.”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김창수(2013). “노년기 죽음불안에 대한 목회적 돌봄 : Erik H. Erikson의 생애주기이론과 Paul Tillich의 실존주의적 관점.”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노상용(2002). “크리스천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박돈희(2007). “죽음준비 교육을 통한 노인들의 목회적 돌봄에 관하여.” 석사학위논문. 계약신학대학원.

박종현(2014). “웰 다잉(well 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연구 : 상하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백옥미(2013). “노년기 우울 치료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성 : 체계적 검토방법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9. 7-30.

서진환(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 : 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가족과 가족치료』. 16(2). 1-30.

손의성(2014).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갱신협의회 여성(돌봄)위원회 세미나 발제문.

송길원·김향숙(2008) “행복한 노년을 위한 목회지원.” 『복지상담학연구』. 3(1). 101-110.

송정림(2014).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 세 번째』. 나무생각.

유제석(2008). “노인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 N노인복지관 노인들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실천신학 석사학위논문.

윤서희·이경준(2012). “노인죽음준비교육 활성화 방안: 기독교적 측면에서.” 『교회사회사업』. 19. 193-232.

이경희(2008).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이은성(2014). “고령화시대 교회 노인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기독교 교육논총』. 40. 387-419.
이정관(2014).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 실천』. 39. 389-411.
이진호(2011). “기독교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전광용(2014). “기독교 노인 자살고위험군의 영혼 돌봄을 위한 기독교상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정경수(2005). “노인의 죽음 준비 교육을 위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정무성(1996).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 모델에 입각한 교회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개발 과정.” 『신학과 선교』. 21. 317-342.
정민재(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차유림(2014). “사별 가족 연구 동향 분석 : 199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7(3). 134-141.
최고은(2012). “노인을 위한 기독교적 죽음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최병현(2002). “노인의 죽음불안과 내세준비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최성재 편저(2012).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 선진국의 경험과 한국의 정책 방향』.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통계청(2015). 『2015 고령자통계』.
한신영(2000). “한국 기독교 노년기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과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Fink A.(1998). *Conducting research literature reviews: from paper to interne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George E. Vaillant(2002). *Aging well.* Little, Brown and Company. New York, New York, USA.
이덕남 역(2010). 『하버드대학교·인생성장보고서 행복의 조건』. 프런티어.
Paul Tournier(1971). *Apprendre a Viellir.* Delachaux & Niestlé S.A., Neuchâtel.
강주헌 역(2015). 『노년의 의미』. 포이에마.